

투데이 칼럼

젊은 시절의 단상

어려서부터 넓은 세상을 보는 게 꿈이었다. 전주북중 1학년 무렵부터는 조그만 배로 누가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등의 소식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접하면 가슴이 뛰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와 끝없이 여러나라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래서 외교관이 되면 그런 꿈을 이루리라는 생각으로 재수 끝에 68년에 서울대 외교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1때부터의 그 친구는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되어 세계를 누비며 살다가 은퇴하여 서귀포 '외돌개 펜션' 주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막마살을 못잊어 지금 이 시간에도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 지중해 연안을 거쳐 로마까지의 자전거 대장정길 어느때를 헤메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보니 우리가 처한 정치 사회적 현실이 참 안울하고 답답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던 공릉동 서울공대 캠퍼스에서의 교양학부 시절에는 10여명과 모여 무슨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정치학과 교수로 막 부임한 장위돈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가끔씩 정치 사회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학교가 시골에 있었기에 1학년때는 대부분 반독재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2학년에 동승동 문리대 캠퍼스로 오면서 3년 개헌 등 강화되는 군사독재의 현실에 직면하여 가끔씩 시위에 동참하면서도 폭력적인 양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본격적인 학생운동은 마음에 없

어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하게 되었다. 외중에도 불문학 공부가 재미있어 불문학과 3학년 강의를 들었는데 문리대의 그 희귀한 여학생들과 사귀어 보려고 불문학 강의 듣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해가 안된 일이지만 후에 간첩불교 지죄로 체포되어 옥살이)의 사회학 불강 (Auguste Comte)은 수강생이 5명이라 교수실 소파에 앉아 강의를 들었는데 사회학과 67학번 여학생이 하나 있어 분위기가 좋았다.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예쁘고 총명했던 그 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가끔 궁금한 생각이 든다. 당시 영어는 스스로 제법 잘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어려워하였는지 영문학 강의를 듣지 않고 문리대 운동장 뒷편에 있던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라는 곳에 들어가 1주에 몇번 미국인으로부터 1년간 회화를 배웠다. 전주고 1학년때 미국평화봉사단원으로부터 회화를 배운후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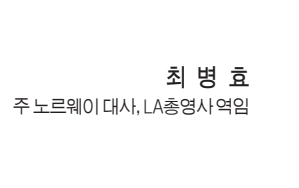
미국에서 돌아오신지 얼마 안되어 참신한 이미지로 존경을 받던 노재

봉 교수님(국무총리 역임)은 외교관이 화려해 보이나 은퇴후에 남는 것은 여행가방과 양복 몇벌 뿐이니 잘 생각하라고 말씀 하시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버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었으니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 대안인데 군대 가고 유학자금 마련하고 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다. 그렇게 진로 방향을 못잡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니 이제 졸업인데 군대 마치고 백수 노릇 하는 신세가 될 것 같아 정신이 들었다. 정치학과 친구들은 학생운동에 매진하여 감옥에 가고 제직되거나 언론계 등으로 빠지고 외교학과는 신사들이라 함한 일은 못하니 아무래도 원래의 목적대로 공직으로 가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모두들 방학때 집 싸들고 절이나 시골로 내려갔다. 군사독재는 영원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니 참고 지내면 민주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직의 길을 합리화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외교학과 20명 동기생중 6명이 의무고시

(당시는 3급 의무직), 6명이 행정고시(3급 행정직), 1명이 사법시험을 거쳐 검사가 되는 등 13명이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1년 정도 공부해서 졸업 직후 의무고시에 합격한 것이니 큰 고생은 안한 것인데, 당시 외교학과 학생들은 짧은 총기와 엘리트 의식이 넘쳐서 요즘 우리 올림픽 선수들처럼 하면된다라는 자신감에 차있어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번 시험은 내가 1등 할 것이라고들 했고 건방지지만 나도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다. 그 근거로는 당시 내가 선택한 영어 불어 중국어의 세과목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었고 그 외의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외교사 등 여타 과목도 학교에서 평소 수강했던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요즘에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어쩌다 동승동 대학로를 헤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세느강이라고 부르던 교문 밖 개울은 북개되어 그 위의 마라도 다리와 함께 사라지고 은행나무들 옆의 도서관도 운동장도 흔적이 없어 생소할 뿐이다. 그 래도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로니에와 라이락, 은행나무들을 바라보면 아쉬웠던 젊음의 흔적 때문인지 이런 슬픔에 가슴이 메이곤 한다. 그 캠퍼스에서 이루지 못한 새파란 로맨스가 많았던 이들의 심사가 오죽할까 상상해 본다. 이제 그 곳은 나이 든 우리들로서는 가끔씩 피해야 할 출입금지 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최병효 주노르웨이 대사, LA총영사역임

독자제언

배려운전 생활화로 보복·난폭운전을 줄이자!

최근 언론매체 통해서 사소한 법규 위반 사례에 격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하거나 대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흥기를 휘두르고 시비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에서 보복, 난폭운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그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난폭운전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진로변경 등 9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벌칙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형사입건 시 40일간 면허정지와 구속 시 면

허가 취소가 된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가해자들은 보복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던지 아니면 급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격앙되어서 이성을 잃고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예방법은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운전에 대해서 현장에서 방황표시 등을 접두하거나 손짓, 몸짓으로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 또한 난폭 및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경태 진안경찰서 청문감사경위

독자제언

아동학대 근절, 책임감있는 부모가 답!

최근 부모에 의해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아동학대를 행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부모가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없는 아이에게 분출하며 학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한 가정의 파과는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아동학대는 아이의 미래를 빼앗고,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아이의 비명소리를 사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는 사람의 결실임을 기억하고 잠시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이 국가가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사설

지역인재 채용 35% 제도화 서둘러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야겠다. 전주시가 제안한 대로 이번에 국민의당이 35% 의무 채용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다 그 결과가 어찌될 지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래 전에 있었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장들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관한 법제화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던 거 말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말만 꺼내 놓고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 공감은 하는 것 같은 데도 어찌 그에 대한 활발한 언급이 없었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진실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간헐적으로 되풀이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면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백년하청이다.

우리 전북 지역의 대학을 나온 인재들을 위해서 먼저 짚어줘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채용에 대한

중앙 정부에 대한 건의가 중요하기는 해도 그게 구색 갖추기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이쪽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보면 지역 인재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다. 오히려 고용 현실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이다.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도내 근로자 중에 40%가 넓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고용 현실이 이란데도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모두에게 의무가 돼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마련과 관련하여 민심을 달래는 식의 발표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전북도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인식하는 바가 정착해야 한다. 다들 제도화 마련에 동참해 법제화가 성사되도록 힘을 모아라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힘찬 추진 기대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위해서 더 힘차게 뛰어 야겠다. 본보는 예전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중국시장 개척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시일이 좀 지났으나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상해시에서 중국 74개 업체의 기업인 130여 명을 초청해 투자기회가 높음을 설명했던 거 말이다. 그때 언론의 보도는 큰 관심을 끌었다면서 밝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나중에 투자 협약이 러쉬를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도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묻고 싶다. 지난 날 여러 번 반복해 말했던 걸 또 말하거나 전북도민 모두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 발전 현안 중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해 있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가 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익산시의 대외 이미지에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깨끗한 이미지와 거리가 있다. 왕궁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변모해야 하지만 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를 위해서도 변모해야 한다. 같은 지역에 협업 시설을 그대로 두고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익산이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뚜렷해야 한다.

전북도의 결단에 따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는 결정된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국가 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식품들은 소비자들이 예약돼 있다.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익산 식품클러스터의 생산한 식품을 소비할 터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인들도 소비할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에 못지 않게 식품클러스터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Large graphic illustration featuring a sailboat on the water, a sun, and a person's silhouette, with text promoting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information and hope for citizen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